

AUTHOR 양금희

TITLE 칼빈과 바르트의 유아세계에 관한 찬·반론과  
기독교교육적 과제

IN 교회와 신학

vol.48:49 (봄·여름, 2002): 80-93

# 칼빈과 마르틴의 유아세례에 관한 찬·반론과 기독교교육적 과제

양금희 | 조교수 · 기독교교육학

## 1. 들어가는 말

“유아세례”는 기독교회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역사에서 자주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테마이다. 특별히 그의 존립근거와 성서적 근거, 성인세례(신자세례)와의 차이점에 관한 논쟁이 되어 유아세례는 교회사나 조직신학 혹은 실천신학의 영역에서 주로 연구되어왔다. 유아세례라는 독립된 개념 그 자체로서 그것은 신학적 영역의 관심일 수 있으나, 그것이 교육적 동반을 전후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유아세례 자체가 갖는 교육적 영향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분명 기독교교육의 테마이기도 하다.

본 고에서는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는 본 교단의 유아세례 입장에 적 긴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종교개혁자 칼빈의 유아세례론과, 20세기 들어서 유아세례에 가장 심각한 도전을 하였던 칼 바르트의 유아세례론에 관한 찬 반론을 고찰하고, 그를 바탕으로 유아세례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의미와 과제들을 가늠해 보려 한다.

## II. 유아세례의 유아세례 논쟁의 역사

유아세례가 서구 기독교의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4세기 말에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sup>1)</sup> 기독교가

1. F.H.Kettler, "Taufe",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Bd. 6, Tübingen, 1986, 638쪽.

국교가 되고 세례가 의무화되면서 로마제국의 대부분의 성인들은 세례를 받았고, 새로 태어나는 유아도 세례의 대상이 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적 배경과 나란히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유아세례를 정착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유전으로 물려받고 태어난다”고 하였고, 인간의 원죄를 씻기는 세례예식이 없이는 구원이나 영생을 희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유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만일 유아가 세례 없이 사망하게 된다면 원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므로 유아세례의식은 필요하다는 것이다.<sup>2)</sup> 그와 같은 어거스틴의 입장은 국교화 이후의 서방교회 상황과 맞물려 유아세례를 확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sup>3)</sup>

물론 어거스틴 이전에도 유아세례에 관하여 언급된 문헌들이 있었다. 터틀리안(A.D. 160-220), 키포리안,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A.D. 330-390)의 저술들 속에서 우리는 유아세례가 대략 2세기 말경에 시작되었다는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 키포리안은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유아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므로 세례로 인한 죄사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나, 터틀리안<sup>4)</sup>과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유아세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들은 유아가 세례 후 죽음으로 세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뿐더러,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 마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세례를 어느 정도 성숙한 후로 연기할 것을 권하고 있다.

고대교회의 문서들 속에서 이미 우리는 유아세례에 관한 두 가지 입장, 즉 원죄를 씻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식으로 보는 입장과 수제자의 인지적인 비명을 통한 고백과 삶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인교회의 역사에서 유아세례의 존립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물음을 제기한

2. “...그렇게도 많은 신적 중인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세례의 우리 주님의 몸과 피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이나 영생을 희망할 수 없으며, 그것들이 없이는 유아들에 대한 약속도 헛된 것이다” Augustine, De peccatorum meritis I, xxxiv.

3. B. Snela, Kindertaufe ja oder Nein? Pädagoger für die Erwachsenentaufe, Kösel, 1987, 47쪽.

4. Tertullian, De Baptismo, dt. xviii

대표적인 도전 가운데 하나는 세계교회라고 할 수 있다. 세계교회 운동은 종교개혁의 한 분파로서 부패한 기독교를 개혁하고 진정한 기독교를 건설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 종교개혁 당시에 서구의 교회는 이미 유아세례가 정착하여 태어나는 모든 유아들이 거의 예외 없이 유아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세계교회들은 이처럼 교회가 단순히 예전적인 유아세례를 통한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반대하고, 개인적 결단과 성령의 역사에 의한 내적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sup>5)</sup> 그들은 유아세례라는 의적인 성례전은 이차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고,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성령에 의한 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하면서, 유아세례의 철폐를 주장하고, 유아세례 받은 자들에게 재세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한 세계교회의 의견은 루터나 칼빈, 츠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에게는 단순히 유아세례에 국한된 문제로만 비쳐진 것이 아니었다. 세계교회의 그것은 당시 세계 위에 기초된 국가교회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문제였고, 따라서 모든 개혁자들은 거의 한 목소리로 유아세례 옹호의 입장을 취하였다.<sup>6)</sup> 그들은 한편으로는 세계교회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동시에 기틀락의 예전적인 유아세례와도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들은 세례만 단순히 의적인 의식을 넘어서서 외적 행위에 동반되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이며, 세례는 신적인 권위를 띠어 사역하신다고 보았다. 따라서 유아세례는 반복될 필요가 없고,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세계교회나 성인세례를 주장하는 모든 분파들을 정죄하였다. 그들의 이와 같은 노력은 유아세례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에서 유아세례 관습을 대세로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0세기 들어 나타난 유아세례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의 하나는 칼 바르트의 그것이었다. 그는 세례 자체의 본질을 성령세례와의 관계에서 재정의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유아세례에 대한 반대입장을 제시하였다. 그와 같은 바르트의 입장은 40년대 독일의 신학계에서 카타린 토른을 불러일으켜, 에밀 브룬너와 쿠르트 알

란트, 요아킴 에레미이스, 오스카 풀만, 린하르트등이 논쟁에 참여하였다.<sup>7)</sup> 바르트가 유아세례 반대 진영의 대표주자로서 신약에는 오직 하나의 “세례”만 있을 뿐 “유아세례”는 없으므로 유아는 세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이었다면, 요아킴 에레미이스는 신약이 “온 집안”의 세례를 언급하고 있고, 신구약 전체는 가족이 집단의 연대감과 상호책임감 및 통일감을 형성하는 공동체였다는 “가족공식(oikos-formula)”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유아도 당연히 세례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였다.<sup>8)</sup>

유아세례에 관한 논쟁이 이처럼 지속되어 온 것은 무엇보다 그의 신약성서상의 전기가 분명치 않다는 점과, 유아세례가 과연 ‘세례 자체가 갖는 본질을 온전히 충족시키고 있느냐 하는 물음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III. 유아세례의 성경적 근거

앞에 언급한 대로 신약성서 상에 ‘유아세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다. 단지 유아세례와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구절이 있을 뿐인데, 찾는 이에 따라 성서는 유아세례에 대하여 긍정적 구절과 부정적 구절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약 성경에서 유아세례를 긍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표적 구절은 가족세례와 관련된 구절이다. 신약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 온 가족이 함께 세례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주강사 루디아와 그의 ‘집’(행 16:14-15),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권속’(행 16:25-34),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행 18:8) 스데바나 ‘집 사람들’(고전 1:16)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요아킴 에레미이스는 이와 같은 구절에서 온 집과 권속이 세례를 받았다 함은 그 집이 속하는 모든 가족들이 세례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up>9)</sup> 그에 의하면 이미 구약성서에서 가족의 연대성과 공동적 인격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어린이와 셋째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가족 전체가 하나의 공동운명체임을 전체

5. 전성용, 『세례론, 칼바르트의 성령론적 세례론』, (서울: 원동출판사, 1999), 253쪽.

6. B. Sinela의 앞의 책, 48쪽.

7. Ch. Grethlein, Taufpraxis Heute, Gütersloh, 1988, 45쪽 이하.

8. 이 논쟁은 유럽대륙과 영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영국 국교회가 저 유명한 “세례의 위기”(Crisis of Baptism, Swanwick Ecumenical Conference, 1965)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으며, 장로교회가 강안스 크롤랜드에서는 1955년부터 1962년까지의 총회에서 유아세례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게 되었다. 로마 카톨릭이 강했던 볼칸서 역시 로기에(A.M. Roggen)와 마티용(A.G. Martimont)같은 카톨릭 학자들의 논쟁이 치열하였다.

9. J. Jeremias, Die Kindertaufe in der ersten vier Jahrhunderten, Göttingen, 1958, 28-44.

하는 일종의 기독공식(ikkos-formula)이 나타나고, 이것이 신앙성서에도 연계된다고 하였다.<sup>10</sup>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온 집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 안에서 볼 때, 당연히 유아에게도 세례를 배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신앙성경의 또 다른 구절은 할례와 세례와의 관계에 관한 구절이다. 골 2:11-12에는 세례를 '살은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함으로써 할례와 세례를 관련시키고 있다. 세례를 이처럼 할례와 연결되는 것으로 볼 때, 할례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인약장 17:11-14)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남자)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한 명령(창 17:10)은 세례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단지 팔일 밖에 되지 않았으나 할례를 받고 계약백성이 되는 것처럼, 유아세례도 유아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예식으로 해석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sup>11</sup>

세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또 다른 구절은 예수님 자신이 어린이에 대하여 취하신 태도와 관련된 구절이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였고,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인수하시며 축복하셨으며, 하느님나라가 어린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다(눅 18:15-17; 마 19:13-15; 막 10:13-16). 물론 예수께서 어린이를 인수한 것이 곧 그가 어린이에게 세례를 주신 것으로 동일시해서는 안되겠지만, 어린이에게 하느님나라를 약속하신 예수님의 입장은 오히려 어린이야말로 명백하게 세례의 대상이 됨을 반증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신앙성서에서 우리는 유아세례 반대지의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절도 찾을 수 있다. 결정적 증거 중의 하나는 신앙성서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세례장면에서 수세자가 시간적으로 먼저 믿고 영접하는 사건이 있을 후 세례에로

10. 에레미아스는 구약에서 기독공식의 예를 찾았는데, 예를 들어 삼상 22:16에서 사울이 이히멜벨을 죽우 하면서 나와 내 아버의 온 집이 죽을 것이라고 하였고, 삼제로 그 복수는 남자와 아이들과 및는 자들에게까지 미쳤던 것을(삼상 22:19) 상기시키고 있다. 또 창세기 45:18-19에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기독을 데려오도록 허락했을 때에도 여자와 하운이, 어린이들을 위해 수해를 제공하여 아무도 남겨두지 않게 했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구약의 기독공식이 비유에게서도(요전 1:16) 나타난다고 하였다.

11. 세례를 할례와 연관성에서 보려는 입장은 종교개혁자 칼빈에게서 나타나고(Fustatino, IV권, 16장), 20세기에는 오스카 칼빈에게서 나타난다. O.Culmann, Die Tauflehre des Neuen Testaments, Erwachsenen- und Kinderstufe, AlthANT 12, Zürich, 1946. 물론 바르트와 같은 사람은 세례를 할례와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견해를 보이고 있다.

결단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먼저 그의 의식적 결단이 있을 후, 그에 대한 세례가 뒤따랐고(행 8:36), 시몬 바울도 회심 후 세례를 받았으며(행 9:18),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 다녔다고 하였다(행 8:13). 그래서 성서는 "믿고 세례를 받다"는 표현을 마치 하나의 관용구처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막 16:16; 행 8:12; 행 8:13)<sup>12</sup> 성서에 나타나는 세례 장면은 대부분 수세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그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있을 후, 세례에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그와 같은 과정을 밟을 수 없는 유아의 경우 세례에의 조건이 형성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서는 유아세례에 관하여 긍정적, 부정적 양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관련성들은 단지 간접적 관련성일 뿐, '유아세례'에 관한 직접적 증거들은 아니라고 하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 IV. 칼빈의 유아세례 이해

개혁자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IV권 16장 전체를 특별히 유아세례에 할애하여 제세례파들의 이론들을 반박하면서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먼저 유아세례를 할례와의 관련성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할례와 유아세례는 단계 외형적 차원에서만 상이할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회의 약속(Verheißung)이라는 점과, 증생의 표징이라는 점, 그리고 성례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적 신비의 차원에서는 서로 동일하다고 하였다.<sup>13</sup> 따라서 유아세례는 할례가 하던 일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이미 인정되었다고 하였다.

칼빈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명령하셨고, 천국이 그와 같은 지의 것이라고 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유아들을 세례의 대상에 포함할 것을 승인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였다.<sup>14</sup>

12. 막 16: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 행 8: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물에 관하여 진도함을 지파가 믿고 담배가 다 세례를 받으니' / 행 8:13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며 그 나타나는 (1)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3. J. Calvin, Institutio, IV, 16, 1.

14. J. Calvin, Institutio, IV, 16, 7.

계속해서 칼빈은 성경에서 '유아세례'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해서 유아들이 세례에서 제외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가족세례의 예를 들고 있다.<sup>16</sup> 그리고 성서에 직접적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유아를 세례에서 제외시킨다면, 이것은 주의 성찬에 여자들이 참여했다는 기사가 없으므로 여자들을 성찬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성경적 판단청과 나란히 칼빈은 유아들도 성인과 같이 아담의 후손이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죽음 가운데 버려지게 됨을 지적하면서,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멸임을 받고 중생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Instituto, IV, 16, 17)

칼빈은 어린이들이 선악에 대한 지식이 없고, 더 나아가 회개하거나 믿을 능력이 없으므로 유아세례를 유보해야 한다는 세계세대의 의견에 대하여서 몇가지의 반대이론을 제기하였다. 먼저 그는 그러한 유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인간인 우리가 유아세례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IV, 16, 20) 다시 말하면 그는 유아의 인지능력이 세례를 배풀거나 배풀지 않는 전제조건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오히려 그와 같은 사고 자체가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그는 절령 인간의 눈에 남독이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유아들에게 지식을 알리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맺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권능을 맺는 것이라고 하였다. (IV, 16, 18)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칼빈은 유아세례나 성인세례가 모두 원죄를 씻고 중생을 얻는 표라고 하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칼빈은 유아세례에서 나타나는 성인세례와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도 유아들이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유아세례는 '강제에 있을 회개와 믿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고, 세례와 더불어 유아 인에는 성령의 은밀한 역사에 의해서 회개와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다는 것이다.

"유아들은 비록 할례를 받는 순긴에는 그 표징의 뜻을 그들의 지적 능력으로 인하여 이해

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을 죽이는 할례를 참으로 받았으며, 이 죽이는 일은 정상된 후에 실행할 것이다 ... 죽 유아들은 장래의 회개와 믿음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며, 아직은 회개와 믿음이 그들 안에 생가지 않았지만 성령의 은밀한 역사에 의해서 그 씨가 그들 안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칼빈은 세계세대들이 믿고 세례를 받거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성서의 구절을 들어서 회개하고 믿는 행위가 선행될 수 없는 유아들의 세례를 반대하고 있지만, 유아의 경우는 다르다고 하였다. 성인의 경우 믿고 회개하는 행위 없이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연하나,<sup>18</sup> 유아는 다르다고 하였다. 아브라함의 경우 성례가 믿음 다음에 있었으나, 그의 아들 이삭의 경우에는 성례(할례)가 먼저 있었다는 것이다:

"아들은 약속의 내용에 따라 상속권에 의해서 이미 모테에서부터 언약에 포함되어 있었다. ... 그 후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참 17:7 참조) 사람들의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sup>18</sup>

칼빈은 성인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언약 밖으로부터 언약 사회에 들어오는 것이므로 믿음과 회개가 선행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난 유아들은 이미 직접 "언약의 상속자"로서 태어났고 하나님께 받아 들여 졌으므로 회개와 믿음이 선행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칼빈의 유아세례 이해에는 우선 유아도 중생되어야 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성인과 똑같이 세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칼빈의 입장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나란히 그가 기졌던 유아와 성인간의 차별성도 발견된다. 그는 물론 유아들의 약한 인지능력, 회개와 믿음 없음은 유아를 세례

16. J. Calvin, Instituto, IV, 16, 20.

17. 칼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때에도, 먼저 언약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은 후 성례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약속의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우선 할례를 주시면서 그 표징의 의미를 감추시려 하지 않고, 먼저 그와 맺으시려는 언약이 무엇인가를 인명하셨다. (창 15:1)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은 후에 그를 성례에 참가하게 하셨다(창 17:11)" (Instituto, IV, 16, 24)

18. Instituto, IV, 16, 24.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아니라 보고였다. 그러나 그러한 유아의 특성은 세례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그에 맞게 먼저 언약백성으로 인치고, 추후에 믿음과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칼빈의 유아세례 이해는 '기독교 가정의 언약 공동체성'에 바탕을 두고 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는 유아는 이미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태어났고 따라서 그들은 새롭게 언약공동체로 들어오는 성인은 또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가 유아세례를 성인세례와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다.

#### V. 칼 바르트와 유아세례 이해

칼 바르트는 1943년에 발표한 유명한 "교회의 세계론(Die Kirchliche Lehre von der Taufe)"<sup>20</sup>에서 그의 세계와 유아세례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 이것이 독일과 다른 국가들에서 유아세례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1943년 이전의 바르트의 세계에 대한 입장은 43년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sup>21</sup> 그 이전에 그는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표시이다"<sup>22</sup>, 혹은 "세계는 인간의 모든 경험과 결정 이전에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서 있다는 표시이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대하여 입장을 취하신 표시이다"<sup>23</sup>라고 정의하는 등 세계의 성례적 차원과 은혜의 차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43년에 발표된 "교회의 세계론"에서는 바르트는 세계를 "성령의 힘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인간이 된 것을 표현하는 행위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 안에는 세계가 성령의 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de iure)'이라는 측면과, 인간의 신앙적 응답(de facto)라는 두 측면이 부각된다. 동시에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인지적(kognitiv)으로 수용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인간이 되

는 윤리적(ethisch) 차원의 삶의 결단을 포괄하게 된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바르트는 그의 「교회교의학」(IV권)에서 세례란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바르트는 여기에서 "우리 밖에서(extra nos)"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in nobis)"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물으면서 이 둘을 '성령의 역사'로 연결시키고 있다.<sup>24</sup>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그분의 역사는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사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의 우리들 안에서 구속사로 나타나고 주어진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위한 변혁의 행위가 성령의 역사로 한 특정인간에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일어난 신적 변혁과 행동이 이 특정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세계"이다.

따라서 바르트는 세계를 "성령세계"와 때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sup>25</sup> 성령세계가 물세례에 앞서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변혁에 참여하게 하면, 물세례는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순종과 윤리적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sup>26</sup> 따라서 바르트는 물세례는 성령세계와 함께 할 때에만 본질적인 것이 되고, 또한 성령세계는 물세례를 배제하거나 무용한 것으로만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이미 예수의 세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신적인 변혁과 물세례가 서로 교차했다는 것이다.

바르트는 따라서 물세례시 인간의 결단을 강조한다. 성령세계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그의 의지로 이 은혜에 대하여 "예"라고 응답할 수 있고 또 이 응답의 통로로 선택하는 것이 물세례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물세례는 수세자가 지원하고 교회가 주는 것이다. 바르트는 그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별적 순종의 표현과 예수에 대한 회개가 포함되어야 하며,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바르트의 세계이해는 그가 유아세례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물세례가 성령세계에 반응하는 인

19. K. Barth, 'Die Kirchliche Lehre von der Taufe', Theologie Studien 14, 1943.  
20. Ch. Grellein, Taufpraxis Heute, Gütersloh, 1968, 57쪽, 이하.  
21. K. Barth, 'Die Lehre von den Sakramenten', Zwischen den Zeiten 29, 427/60.  
22. K. Barth, Kirchliche Dogmatik I/1, Zürich, EVZ Verlag, 1932, 159쪽.

23. Ibid, 21쪽 이하.  
24. Ibid, 33쪽.  
25. Ibid, 49쪽.

간의 응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발적 순종과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았을 때, 유아세례는 그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교회의 역사에서 유아세례에 관한 논쟁은 모두 교회 내·외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유아세례를 지켜내야 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 졌을 뿐, 단 한 번도 유아세례 그 자체의 본질에 관한 논쟁은 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아세례에 관한 논쟁이말로 세례의 원래적 의미와의 관련성 속에서 숙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유아세례도 세례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물세례 자체가 갖는 본질적 성질, 즉 성령세례에 대한 인간적 측면의 응답과 삶의 변화·윤리적 차원의 결단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러한 세례의 원래적 본질을 포기하거나 유보하면서까지 유아세례라는 것을 지속시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우선 유아세례는 실제로 교회사에서 기독교 초기 2세기까지 생긴 예식 이 아니라 후기 교부시대에 생긴 것이며,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 신학적으로 정당화 된 것일 뿐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를 갖고있지는 않다고 하였다.<sup>26</sup> 유아세례 옹호자들이 제시하는 모든 정치적 근거들은 화미하게 그 끈을 연결시켜보려는 시도일 뿐 유아세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근거들을 증명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유아세례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대표적 개혁자인 칼빈의 유아세례 개념을 비판하였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칼빈은 유아들은 성인과는 달리 세례 시에 신앙과 회개를 전제할 수는 없으나, 유아세례로 인하여 유아 안에 신앙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며, 이것은 후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다. 바르트는 '미래의 신앙'이란 성서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신앙 없는 유아세례는 '반쪽짜리' 세례라고 비판하였다. 칼빈은 카톨릭교의 7성례를 거부하고 성찬과 세례만을 성례적으로 인정하고 구교의 "견신성사"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의 유아세례는 미래에 이루어질 신앙의 씨앗을 놓는다는 점에서 '입교(immung)' 예식을 통 하여서만 온전한 세례가 되는 반쪽 짜리 신앙이라는 것이다.<sup>27</sup>

그는 또한 유아세례가 부모나 후견인(Fate, Pater) 등의 신앙에 근거하여 이루어

어진다는 대리적 신앙이론이 세례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누군가에 의해 대리되는 신앙은 물세례가 성령세례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이 자유롭게 결단하는 의적 행위라고 하는 세례의 본질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바르트의 유아세례반대의 입장은 그의 '성령세례'를 바탕으로 하는 세례론에 근거한 것이며, 그러한 성령론적 세례론의 기본적 입장에 근본적으로 일치하지 못하는 유아세례는 그에게서 온전한 세례로 인정될 수 없었다.

**VI. 맺는말 - 유아세례의 기독교교육적 의미**

칼빈과 바르트의 유아세례에 관한 입장의 차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세례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유아세례의 특수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다. 유아세례가 유아의 신앙교백과 의지의 결단이 없이 부모나 보호자의 신앙에 의하여 먼저 세례를 받고, 자신의 신앙교백은 세례 이후에 오도록 하는 것을 인정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그 찬반의 기준이 있다. 칼빈의 경우 이것을 인정하고 있고 바르트의 경우 이를 인정치 않는다.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단들 간에도 이와 같은 입장의 차이로 유아세례 시행 여부가 갈라져 왔다. 세계교회협의회(WCC)에서 1982년에 통과시킨 신앙과 직제 문서(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요약하여 BEM Text)에서도 유아세례에 관한 이러한 교회와 교단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부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다수가 기독교적 신앙으로 유아들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들이나 보호자들이 데리고 오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다른 교회들은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신자에게만 세례를 베푼다"<sup>28</sup>

BEM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마다 유아세례와 그의 시행여부에 관한 상이한 전통과 입장이 있다. 침례교를 비롯한 몇몇의 교회가 신자세례(성인세례)를 시행하고, 대안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을 비롯한 더 많은 교회들이 유아세례 전통을 지켜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아세례를 전통으로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다기보다, 교회가 유아세례를 베푼 경우 이를 얼마큼이나 교육적으로

26 K. Barth, Kirchliche Dogmatik, IV/4, Zürich, EVZ-Verlag, 1967, 183쪽.  
 27 Ibid, 190-192쪽.

28.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Paper No. 111, Geneva: WCC, 1982, 12쪽.

동반하는가에 있다고 보여진다. 유아세례는 기독교적으로 양육할 준비가 되어있는 부모(혹은 보호자)에 의해 이끌려온 유아에게, 그들이 후에 스스로 신앙고백을 할 것을 기대하며 베푸는 예식이다. 따라서 세례 받은 유아기 후일 스스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동반하는 것은 유아세례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BEM 문서에서도 유아세례의 이와 같은 교육적 동반이 강조되고 있다.<sup>29)</sup>

따라서 교회가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은 교회와 부모, 그리고 전 회중이 유아를 기독교적으로 양육할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에 대한 공동체적 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현재 우리의 교회들이 유아세례의 이와 같은 교육적 의미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그들의 교육적 책임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아세례는 어린이 주일이나 특별한 절기에 베푸는 일회적 행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유아를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이고, 그가 그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미래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공동체 전체가 엄숙하게 약속하는 예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아세례를 위한 교회의 교육적 동반은 무엇보다 유아세례를 전후로 한 "부모교육"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부모교육을 통해서 세례를 앞둔 유아의 부모들로 하여금 유아세례의 의미와 부모의 책임과 과제, 기독교 가정의 역할 등을 분명히 깨닫고 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같은 부모교육은 세례를 전후로 시행될 뿐만 아니라, 유아기가 성장하여 청소년이 되기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연령층을 연계하는 단계별 부모교육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교회의 장기적 계획 수립이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유아와 부모로 하여금 유아세례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같은 해에 유아 세례반에서 함께 교육받고 세례 받은 유아와 부모들이 세례 받은 날에 함께 모여 세례를 기념하고, 세례의 의미를 상기하며, 부모들 상호간에 교육적 문제도 서로 나눌 수

29) "신자세례와 유아세례는 모두 신앙공동체 안에서 행해진다. 스스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경우, 개인적인 신앙고백은 세례예배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유아기 세례를 받는 경우에는 그의 개인적 응답이 그의 생애의 후일에 주어질 것이다. ... 유아의 경우는 신앙고백이 나중에 기대되고, 세례 받은 유아에 대한 기독교적 양육은 이와 같은 신앙고백을 이끌어내는 쪽을 방향 잡아야 할 것이다" BEM

있는 모임은 유아세례가 한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유아세례를 교육적으로 동반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입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입교는 세례 받은 유아기 성장하여 자신의 의지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공동체 안의 독자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예식이다. 따라서 입교교육은 추후적으로 실시되는 세례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교회는 입교교육을 통하여 그들에게 한 사람의 독립된 교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독교의 기본적 가르침과, 교회에 관한 이해, 성서에 관한 이해 등을 매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신앙적 결단과 고백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동반되는 교회의 교육적 노력이 함께 할 때에만 유아세례는 미래에 있을 유아의 신앙의 고백을 오늘 언약공동체 안에서 '선취'하는 은혜의 세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sup>30)</sup>